

## 0.94 학점과 새로운 중세

(성대신문 2000.11.6, 고영만)

중세는 통상 10세기의 전환기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부정적 시각에서 볼 경우 종교시스템이 전체 사회를 교조적으로 지배하던 시대였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우리의 시대가 새로운 중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0.94 학점과 새로운 중세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0.94 학점은 우리 대학의 현실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중세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징후이기도 하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3학점 짜리 강의를 세 교수가 나누어서 진행할 경우 16주 강의에 두 사람은 5주씩, 한 사람은 6주로 입력되므로 16분의 5는 0.94학점, 16분의 6은 1.12 학점이 된다는 것이다. 셋이서 5주씩 강의하고 마지막 16주 째는 셋이서 공통으로 출제하는 기말 시험을 치를 때에도 학교의 시스템에는 매주 한 사람씩만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안된다는 것이다.

전공의 특성상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학생들로부터 자주 받는다. 그럴 때면 시스템의 본질은 “어떤 임의의 것을 보다 쉽고 보다 실용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가상의 모델”이라고 설명을 해준다. 그리고 시스템의 사회학적 의미는 “우리의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복잡성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면서 경제적 정치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우리 인간의 행위를 도구화시키고 또 우리의 생활세계에 파고들어 자율성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되면서 다가오고 있는 앞으로의 시대에 대한 전망은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계몽의 확산 테제로서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하고 개방된 정보의 토대 위에 서게 될 것이므로 지금까지의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는 완벽하게 실현시킬 수 없었던 계몽의 요구를 보충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 유토피아 테제로서 정보·통신기술이 일방적인 사회의 조정매체로 사용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의 생활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니고 있는 방어력이 더 약화되고 그래서 정보 독재에 의해 활력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부정적 관점이다.

0.94 학점 문제의 해결은 기술적으로는 여러 사람의 이름을 동시에 입력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디자인하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머리를 써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려면 기술적·경제적·행정적으로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고치는 대신에 사람더러 거기에 맞추라는 것이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학사관리를 보다 쉽고 실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모델인 학사관리시스템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학의 일상적 생활과 행위를 짜놓은 틀에 맞추도록 도구화시켜 가는 것이다.

대학 강단에 선 이후 어디로부터도 들어보지 못했던 0.94 학점 짜리 강의. 그런데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서 0.94 학점이 지니고 있는 대학에서의 본질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소가 웃을 일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일이 아닌 것이다. 르네상스의 자유

로운 지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대학에서 빅브라더가 감시하는 오웰적 환경과 교조적 획일화가 지배하는 부정적인 새로운 중세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미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효율성 향상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고 기정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최면에 걸려있는 셈이다.

새로운 중세를 보는 여러 견해 중에서 움베르토 에코는 긍정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포스트모던인가 새로운 중세인가”라는 책에서 에코는 중세의 교회에 한방 먹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면 중세는 역설적으로 르네상스를 잉태한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음을 간과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에코가 내다본 새로운 중세는 새로운 적응방식을 요구하면서도 르네상스적 문화혁명의 계기를 만들어가는 시대이다.

0.94 학점이 우리 대학으로 하여금 긍정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중세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시금석은 듣기에도 우스꽝스러운 0.94 학점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올바른 척도를 가지고 항상 시스템의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공동으로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바로 우리 대학인이다. 이러한 준비와 노력을 위한 단결을 소홀히 할 경우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어느 순간에 개개인에게 전가될 것이다.